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4, pp. 433-439,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4.433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모형 분석

김경진[1], 김재화[2*]
[1]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연구교수, [2]순천향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조교수

Analysis of Model of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to Watch Mega Sports Event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yungjin Kim[1], Jaehwa Kim[2*]
[1]Research Professor, Dept.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Korea Nazarene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ept. of Sports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에 대해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변인들 간의 인과적 영향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하위 변인들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Cronbach's a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 및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CFI, NFI, IFI의 평가지수가 수용의 기준을 충족하여 이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연구모형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행동신념과 규범신념은 관람 의도에 정(+)의 유이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의 통제신념 관람 의도에는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계획행동이론,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 대학생, 관람 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the research model on the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to watch mega sports eve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whic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applied,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ased on the items of sub-variables deriv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optimally constructed through expert meetings, validity,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For data analysis, Cronbach's α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M)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ere performed using AMOS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model of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to watch mega sports event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to whic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applied, the evaluation indices of CFI, NFI, and IFI met the acceptance criteria, indicating that this research model was well suited.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 research model on the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to watch mega sports ev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was found that the behavioral beliefs and normative beliefs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 influence to intention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ly negative (-) influence on the control beliefs to intentions.

Key Words : Theory of planned behavior, People with disabilities, Mega sports event,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to watch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 Jaehwa Kim(jayjae@sch.ac.kr)
Received January 18, 2022 Revised February 11, 2022
Accepted April 20,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는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2020년 7월 24일에 개막 예정이던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사람 간의 전파를 우려하여 무기한 연기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020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8 일에 폐회식을 하였고, 패럴림픽은 2021년 8월 24일에 개회식과 9월 5일 폐회식을 통해 성공리에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다.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은 총 163개국 4,537명이 참가하였으며, 22개 종목에 540개의 경기가 펼쳐졌다. 우리나라는 8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 2, 은 10, 동 12개의 성적으로 종합순위 41위에 오르게 되었다[1].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성공리에 막을 내렸기에 이번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을 기대하였지만, 아쉽게도 성적은 예상보다 부진하였다. 성적으로만 보면 1968년 처음 출전한 이스라엘 하계패럴림픽 이후 가장 낮은 순위였다. 특히 1988 서울 하계패럴림픽의 종합 7위, 2016년 리우 하계패럴림픽 20위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순위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원의 부족과 함께 세대교체 실패 및 가장 많은 메달을 딸 수 있는 수영과 육상 등의 기초종목에서 부진한 이유가 크다고 분석된다[2].

또한 패럴림픽과 같은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성원과 관심이 비장애인 스포츠에 비해 낮다. Welfarenews[3]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방송 3사 중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 도쿄올림픽 중계는 총 48,300시간이었지만, 패럴림픽은 3,515시간으로 2020 도쿄올림픽 중계시간 대비 도쿄패럴림픽의 중계시간은 7.3%에 불과하였다. 2020 도쿄패럴림픽의 KSB1 중계 방송 중 38%는 이마저도 자정 이후에 하이라이트로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 대한 낮은 국민의 관심으로 인해 중계방송조차 많은 외면을 받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패럴림픽의 중계에서 자막과 수어 통역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시·청각장애인의 시청권 문제까지도 제기되었다.

이는 학문의 발전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9월까지 2020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연구는 30편이 넘게 보고되었지만, 2020 도쿄패럴림픽과 관련된 연구로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4]가 유일하였다. 대체로 대회가 끝난 후에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만, 비장애인 대회와 장애인 대회에 대한 연구 관심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20 도쿄패럴림픽과 같은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단순한 상호작용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스포츠를 관람하였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더욱 긍정적이기 때문이다[5,6]. 또한 패럴림픽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7].

지금까지 비장애인에 대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다[8-10].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계획행동이론[11]을 바탕으로 비장애인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람의 태도, 사회적 압박, 통제적 능력을 통해서 관람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과 관련된 연구는 미진하여 Kim & Kim[2]의 연구 밖에 없었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대학생들의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람 의도 척도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람 의도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장애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 관람 의도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변인들 간의 인과적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람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과 2020 도쿄 하계패럴림픽 이후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모집단을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

로는 대학생들의 이벤트 관람객 비율이 높으며, 사회적 문제와 최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이다[12]. 또한 현재의 대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G도와 C도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각 대학교의 학과장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설문지 참여의 동의를 구한 뒤 설문지를 실험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배포 및 수집을 하였다. 다음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의 설문에 응답해 준 참가자들은 총 367명으로 중복응답 및 성실히 응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한 총 339명의 데이터를 최종 자료로 활용하였다. 남성은 174명(51.3%), 여성은 165명(48.7%)이였다. 참가자들의 학년은 1학년 60명(17.7%), 2학년 62명(18.3%), 3학년 66명(19.5%), 4학년 151명(44.5%)이였으며, 장애인스포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195명(57.5%)과 시청한 경험이 없는 참가자는 144명(42.5%)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74	51.3
	Female	165	48.7
Grade	Freshmen	60	17.7
	Sophomore	62	18.3
	Junior	66	19.5
	Senior	151	44.5
Watching sports for disabilities	Yes	195	57.5
	No	144	42.5

2.2 측정도구

2.2.1 측정도구(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설문지)는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이란 Ajzen[2,11]에 의해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시킨 것으로, 사람이 기존에 지니고 있는 태도에서 행동까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행동의 하위 개념으로 행동의도,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에 대한 신념, 주관적 규범, 규범적 신념, 지각된 행동 통제, 통제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한 사람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주변사람들의 생각 및 의견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주변사람들에 의해 그 행동이 용인될 때(주관적 규범), 행동의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행동을 자기 자신이 잘 통제하여 특정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위요인에 따른 행동의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하위요인에 따른 현재의 행동의도를 통한 행동 분석에서 앞으로의 행동의도 및 행동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획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해 앞으로의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측정도구(설문지) 구성은 Kim & Kim[2]의 연구에서 도출된 변인 4가지로서 관람 의도, 행동신념, 규범신념, 통제신념의 측정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구성된 설문지의 변인과 문항을 바탕으로 3명의 특수체육 전공 전문가 및 대상자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문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를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초기 설문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의 변인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절차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 문항들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문항구성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estionnaire composition

Factor	Question content	Number of questions
Intention	I intend to go to the Paralympic Games.	2
	I am willing to go to the Paralympic Games.	
Behavioral beliefs	If I could see the Paralympic Games, it would be a positive stimulus (motivation) to my life.	3
	It will be a good memory and experience for me to go to the Paralympic Games.	
	If I go to the Paralympic Games, the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improve.	
Normative beliefs	My friends think I should go to the Paralympic games.	4
	My family thinks I should go to the Paralympic games.	
	My parents think I should go to the Paralympic games.	
	My club members think I should go to the Paralympic Games.	
Control beliefs	It is difficult to go to the Paralympic Games because there are classes.	2
	It is difficult to go to the Paralympic Games because of the assignment.	

2.2.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해 표준적합도(KMO)와 Bartlett의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X^2값이 1862.23, $p<.001$, KMO값은 .83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나타났다. Table 3과 같이 전체의 누적 설명력은 76.25%로 높게 나왔으며, 각 요인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Cronbach's α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모두 .60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Question	1	2	3	4	commonality
Q1	.87	.13	.17	-.10	.83
Q2	.86	.14	.18	-.08	.80
Q3	.85	-.03	.19	.09	.74
Q4	.84	.03	.31	-.00	.61
Q5	.09	.83	.17	-.09	.82
Q6	.31	.69	.16	.05	.80
Q7	-.23	.63	.01	.33	.80
Q8	.40	.25	.77	-.03	.84
Q9	.45	.19	.74	-.03	.74
Q10	-.20	-.04	.12	.88	.58
Q11	.26	.25	-.29	.72	.78
Eigenvalues	3.59	1.80	1.52	1.46	
Dispersion	32.67	16.43	13.87	13.27	
Accumulate	32.67	49.10	62.97	76.25	
Reliability	.92	.62	.84	.60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요인 간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Table 4의 결과와 같이 Normed X^2 170.80, CFI .93, NFI .91, IFI .93으로 산출되어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Table 4.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result

Division	Verification result of goodness of fit
Normed X^2	170.80
CFI	.93
NFI	.91
IFI	.93

2.3 자료처리

이 연구의 데이터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Cronbach's α)와 타당도 검증(탐색적 요인분석(EFA))은 SPSS 21.0을 이용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모형적합도 평가지수 및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비교부합지수(CFI), 표준부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는 .9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13-15].

3. 결과

이 연구의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모형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행동 이론을 적용한 각 변인간의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는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CFI .91, NFI .90, IFI .91로 산출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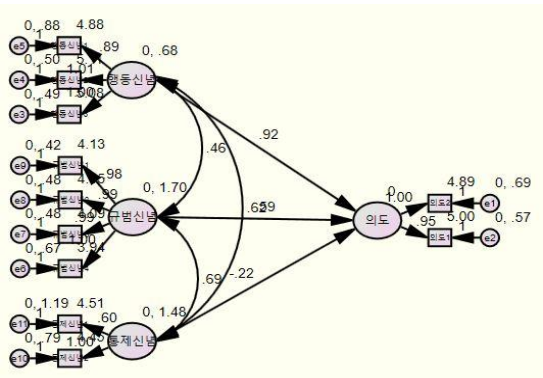

Fig. 1. Result of verification of fit of research model

3.2 연구모형의 영향관계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하위 변인들 간에 나타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Estimates of the parameters of the research model

Parameter	Estimate
Behavioral beliefs → Intention	.92(12.49)***
Normative beliefs → Intention	.59(16.70)***
Control beliefs → Intention	-.22(-4.27)***

Note. ***p<.001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통해 나타난 영향관계 검증 결과는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행동신념이 관람 의도(경로계수=.92, p<.001),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규범신념이 관람 의도(경로계수=.59, p<.001),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통제신념이 관람 의도(경로계수=-.22, p<.001)로 도출되었다.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행동신념과 규범신념은 관람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통제신념 관람 의도에는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이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영향관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 중 스포츠에 대한 참여 및 관람 의도를 알아본 연구들[2,16,17]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의 선행연구인 Kim & Kim[2]의 연구에서 도출된 측정모형 적합도와 같이 양호한 적합도가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람 의도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와는 다르게 행동신념·규범신념·통제신념 및 의도 문항에 있어 이 연구에서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은 수정 및 보완한 점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대학생 및 학과(보건계열, 심리학, 어문학, 체육학과, 특수체육학과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및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연구모형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행동신념과 규범신념은 관람 의도에 인과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의 통제신념 관람 의도에는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 Oh[18]와 Lee[19]의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람 의도에 통제신념이 부의 영향관계가 나온 이유로 Lee[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비장애인)의 장애인 및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Kim & Oh[18]의 연구에서는 통제신념이 장애낙인에 따른 계획행동이론 하위변인 영향에 가장 낮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르다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오는 장애 낙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비장애인이 장애인 스포츠를 바라보는데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통해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통제신념 문항을 살펴보면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이유로 수업과 과제의 학업에서 오는 부담이므로 대학생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람 의도에 있어 통제신념이 정적인 영향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의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람 의도에 행동신념과 규범신념은 인과적 영향관계를 나타낸 이유로 대학생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관람 의도에 큰 영향을 미쳤고[20], 대학생들은 사회적 압력과 주변의 영향이 의도에 큰 동기부여를 한다는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21]. 특히 행동신념이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은 사회적·문화적인 요소에 매우 민감하여 무언가를 경험하고 추억 남기기를 선호하며, 장애인식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 의도에 행동신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11]. 또한 규범신념으로

대학생들은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관람하는데 있어 가족, 부모,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답하였다. 이는 Potwarka et al.(2014)과 Megginson et al.(1995)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데 있어 가족 또는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한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였다[22,23]. 대학생은 초기 성년기에 위치하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가족 및 친구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모형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는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예측 가능하였다.

둘째,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 연구모형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행동신념과 규범신념은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생의 통제신념은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 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대학생의 관람 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검증하는데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람에 대한 행동신념·규범신념·통제신념·의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문화적 시스템 개발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추후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고, 장애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 의도에 대한 통제신념 부(-)의 유의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의 분석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Korean Paralympic Committee. (2021). Korean Paralympic Committee Homepage. From https://www.koreanpc.kr/index.do

[2] J. H. Kim, & K. J. Kim.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Measuring Intention of Going to a Disability Mega Sport Event: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73*, 391-405. DOI : 10.51979/KSSLS.2018.08.73.391

[3] Y. S. Park. (2021.10.06.). Tokyo Paralympic Games Broadcast, only 7.3% Compared to the Olympics. Wellpare News.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8928

[4] C. J. Kim, & J. K. Byeun. (2019). The Plan for Physical Fitness Support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Korean National Athletes with Disabilities in the Tokyo Paralympics 2020.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7(2),* 1207-1217.

[5] D. Özer, F. Baran, A. Aktop, S. Nalbant, E. Aglamis, & Y. Hutzler. (2012). Effects of a Special Olympics Unified Sports Soccer Program on Psycho-social Attributes of Youth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 229-239.

[6] T. P. Shriver. (1997). Effects of the Special Olympics World Games on Attitudes of Non-handicapped Children Towards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8(4-A),* 1247.

[7] K. Ferrara, J. Burns & H. Mills. (2015). Public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fter Viewing Olympic or Paralympic Performance.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32(1),* 19-33. DOI : 10.1123/apaq.2014-0136

[8] S. H. An & C. K. Lee. (2017). The Effect of Temporal and Spatial Distance for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1*(1), 47-63. DOI : 10.17086/JTS.2017.41.1.47.63

[9] Y. A. Park. (2013).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Local Residents' Spectator Motivations, Attitude and Participation Intention in Mega Event: A Focus on a Moderating Role of Local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91-2709.

[10] M. Park, T. Yoh, Y. S. Choi & M. W. Olson. (2011). Consumer Attitudes Toward the Paralympic Games and Purchase Intentions Toward Corporate Sponsors of the Paralympic Games: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Journal Venue and Event Management, 3(2),* 2-15.

[11] I. Ajzen. (2010).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2nd ed.).* New York: McGraw Hill.

[12] T. H. Feeley. (2007).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Regarding Organ Donation: An Integrated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2),* 243-271.
DOI : 10.1111/j.0021-9029.2007.00159.x

[13] D. Hooper, J. Coughlan & M. R. Mullen.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 53-60

[14] R. B. Kline.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15] L. R. Tucker & C. Lewis.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DOI : 10.1007/BF02291170

[16] H. S. Lee. (2012). Analysis of Model of Sport for All Participate Behavior with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pplied to the TPB.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2),* 431-440.

[17] H. I. Jo. (2005). An Examin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in the Participation and Adherence of the Golf.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3),* 277-285.

[18] K. J. Kim, & A. R. Oh. (2020). An Analysis of Intentions Toward Assessment about Physical Activit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by Disability Labels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Asia-Pacific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7(1),* 87-103.

[19] H. S. Lee. (2014). The Analysis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or's Behavior Intention Toward Teaching Student with Disabilitie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3(4),* 825-835.

[20] I. Ajzen.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21] E. Bondy & M. T. Brownell. (2004). Getting Beyond the Research to Practice Gap: Researching Against the Grain.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27(1),* 47-56.

[22] L. R. Potwarka, R. Nunkoo & R. E. McCarville. (2014). Understanding Television Viewership of A Mega Event: The Case of the 2010 Winter Olympic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23(5),* 536-563.

[23] N. Megginson, F. Degnam, N. Rynn & T. Kakert. (1995). Spectators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Team Allegiance with Wheelchair Basketball. *In Poster Presented at 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apted Physical Activity, Oslo/Beitostolen, Norway.*

김 경 진(Kyungji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학과(학사)
· 2009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석사)
· 2016년 12월 : Texas Woman's University Kinesiology(PhD)
· 2020년 7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연구교수
· 관심분야 : 특수체육
· E-Mail : kkij1004@gmail.com

김 재 화(Jaehwa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학과(학사)
· 2010년 2월 : Texas Woman's University Kinesiology(MS)
· 2015년 5월 : Texas Woman's University Kinesiology(PhD)
· 2019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특수체육
· E-Mail : jayjae@sch.ac.kr